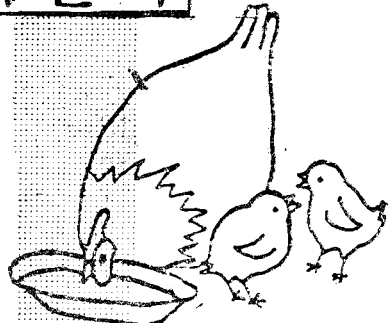


# 이달의



## 사양관리

### 1. 산란계

#### 1) 사료배합물의 조절

외기온의 상승, 일조시간의 연장에 따라 육성중의 병아리는 성성숙이 촉진되고 산란중의 성체는 산란율이 증가되니 겨울동안 급여했던 사료만으로는 닭의 체유지 및 산란의 증가에 부합될수 없으므로 사료 배합물

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겨울사료는 주로 체온 유지를 위한 카로리의 함량에 중점을 두지만 4월부터는 단백질의 함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청초의 급여나 약품의 첨가를 증가시켜 사료내의 비타민, 무기물함량이 부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취소계 방지

소체구의 수입중에 있어서는 취소계의 발생을 크게 볼 수 없으나 유색계 겸용중에 있어서는 닭의 유전적인 생리작용에 의하여 알을 품는 닭의 발생을 볼 수 있다.

취소계는 취소기간동안의 생산감소는 물론 취소후에 휴산계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기 발견 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취소계 발생을 막으려면 주로 환경의 개선에 의한 방법으로 절동시간의 연장, 통풍, 채광, 격리, 빈번한 집란, 밀사방지, 초생추의 격리 등에 의해 어느정도 취소성을 방지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방법은 유전적으로 취소성이 없는 닭을 사육함이 중요하다.

#### 3) 환경의 개선

외기온의 상승에 따라 방한시설을 제거하고 통풍을 충분히하여 계

사내의 환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자연일조시간의 연장에 따라 초산직전의 대추에 있어서는 성성숙의 촉진으로 초산일령이 단축되어서 경란, 소란의 생산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명시간의 조절과 사료의 제한에 의해 성성숙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평사제사는 겨울동안의 습윤했던 깔짚을 제거한 후 새로운 깔짚을 보충시키고 케이지 제사인 경우는 제분작업을 빈번히 하여 (1주에 2회) 제사내의 과습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 4) 철저한 소독

4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계절임에 닭의 산란율의 증가에 따른 체력 감소와 병행하여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원체의 발생 또한 증가되는 계절이므로 외래인, 야조 및 쥐등의 제사출입의 통제는 물론 정규적인 소독계획에 의해 제사내의 및 닭 개체에 대해 살균, 살충소독을 반복 실시해야 한다.

### 2. 육계(Broiler)

#### 1) 초생추 구입의 신중

2,3월 부터 시작되는 육계 초생추의 구입경쟁은 점점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4월에 접어들면 구입경쟁이 치열하게 된다.

특히 년중 계속하여 사육하지 않고 봄 한철만 사육하는 육계 사육자에 있어서는 병아리 구입의 곤란으로 부화장의 신용도, 병아리 질의 양부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병아리 구입에만 혈안이 되므로 구입의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용있는 부화장과의 계약하여 구입해야 한다.

#### 2) 생산물 판매

국내 육계사육업자에 있어 경영상 크게 차질을 초래하는 것은 국

4

월

김 상 곤  
<인산농원 제1농장장>

내 계육 수요규격이 외국과 달라 9주이상 사육된 대체종(1.8kg이상)의 수요가 거의 없는 사정임에 품종 고유의 능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시기(육계 전용종은 대부분 9주)에 출하하지 못하고 급속한 발육 직전에 출하하게 되므로 경영적으로 다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부분별로 해체하여 판매하는 거제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육자는 육계 전용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의 수요가 허락하는 한 1.5kg이상의 체중에 출하할 수 있도록 판매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한다.

세미부르일러 경우에 있어서는 9주시의 출하가 가장 유리함을 알면서도 kg당 5~10원 더 받기 위해 소매상과 거래하다 생산한 전량을 일시에 판매치 못하고 잔존분을 폐쇄화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생후 입추전에 도계 공장이나 대량취급 생계수집상과의 사전계약하에 병아리를 일추시킴이 유리하다.

### 3) 방역대책

부르일러 계사의 방한시설은 산란계사처럼 너무 성급히 제거하지 말고 주간의 온도 상승시에만 통풍을 충분히 시켜 주면서 야간에는 최대한 브온을 유지해야 한다.

계사 내외의 살충 살균소독은 물론 뉴켓슬 예방접종 또한 출하시까지 2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계두예방접종도 필히 실시토록 해야한다.

부르일러 사육업자 중에는 모기가 있는 여름철에만 계두예방접종을 하고 모기가 없는 계절에는 실시치 않아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나 부르일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군에 대해 1회이상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

## 3. 종계

### 1) 채종직전 종계

4월들어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는 전년도 가을에(9, 10월) 입추될 종계로서 대추시기에 동지를 지나 일조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시기에 육성 되었기 때문에 성성숙이 촉진되어 종란으로서 가치가 없는 부적격란의 생산이 많아지므로 인위적인 방법, 즉 점등시간의 통제 제한급이(절적제한 또는 양적제한), 디비킹, 종계사로 급역의 지연, 배웅시기의 지연 등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초산일령을 지연시켜 종란을 증가시켜야 한다.

종계에있어 산란율이 산란피크를 향해 상승하고 있을시 관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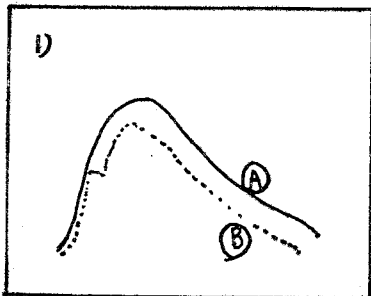
종계관리 전기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영양관리, 질병관리, 점등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란피크시의 산란율이 전 산란 기간 동안의 산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림 1, 2, 3과 같다. (육계종계의 예)

아래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육계종에 있어 산란율이 피크에도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산란말기까지 계속해서 저산란율을 나타내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에 의해 산란피크를 최고도에 올려놓고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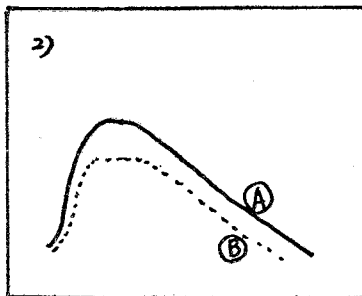
### 2) 육성중인 종계

2~3월에 수입되어 사육되고 있는 종계에 있어 4월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점등 관리에 있어 점등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곤란할뿐 아니라 지나친 일광의 조사도 카니발리즘 증상이 나타나므로 3~4주 사이에 부리자르기를 실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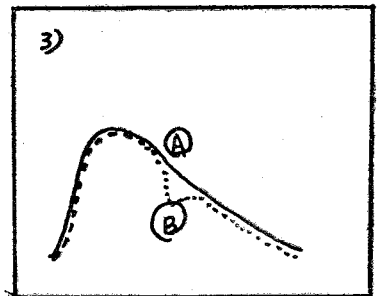
또한 폭시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약 투여(3일간 설과제 투여, 10일 걸려서 다시 3일간 투여, 암푸롤은 28일령, 60일령 5일간 투여)와 마력병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 : 표준산란곡선  
Ⓑ : 질병발생시 산란곡선



Ⓐ : 표준산란곡선  
Ⓑ : 피크미달시의 산란곡선



Ⓐ : 표준산란곡선  
Ⓑ : 산란피크후 스트레스 발생시